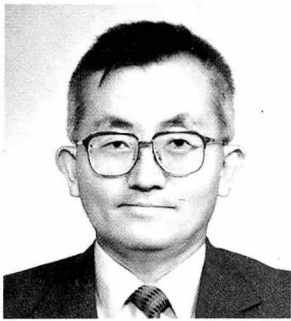


# 태평양 시대와 漢字

朴 星 來

(한국외국어대 사학과 교수)



## 필 자

- ▲ 서울대 문리대 물리학과 졸업
- ▲ 미국 켄사스대 사학과 석사(과학사)
- ▲ 미국 하와이대 사학과 박사(동양사)
- ▲ 조선일보·중앙일보 기자
- ▲ 한국과학사학회 부회장(현)
- ▲ 한국외국어대 사학과 교수(현)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컴퓨터의 미래에 대해 그리 호의적이 아니었다. 그는 『우리가 아무리 컴퓨터 따위의 기계를 발달시켜 간다해도 인간에 관한 아무런 예측이나 예언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같은 그의 예언은 지금부터 32년전 1956년에 쓴 그의 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바로 2년 전인 54년의 미국 선거에서 컴퓨터는 형편없는 예언을 했던 적이 있다. 물론 컴퓨터에 대해 지식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컴퓨터의 잘못이 아님을 알 수 있었지만 많은 일반인들은 컴퓨터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사실 아직 컴퓨터라 부를 만한 것이 제대로 나오기도 전의 일이고 보면 토인비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던 것도 그리 이상할 것은 없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컴퓨터의 덕택으로 많은 것을 예측하고 그것을 근거로 이런 저런 예언을 해 보기도 한다. 그리고 그런 예측과 예언의 적중률은 상당히 높다고 할 만하다. 토인비가 그런 비관적 예측을 한지 불과 1세대 만에 세상은 참 많이도 바뀌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물론 그렇다고해서 우리가 지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류의 미래를 앞질러 내다 볼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컴퓨터가 인간에게 千里眼을 달아 준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토인비의 비관적 예언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는 지금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그런 존재가 되어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이 방면 발전상은 말 그대로 눈부신 것이다. 그런데 정보화 사회의 대표적인 컴퓨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저런 혜택과 응용을 말하고 있지만, 막상 그것이 일으키고 있는 인간 의식의 혁명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본 사람이 없는 모양이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간은 누구라도 아주 쉽게 많은 정보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옛날 같으면 정말 어렵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아주 옛날에는 정보의 소유는 집권자의 특권이어서 아무나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없었다. 지배자를 중심으로 한 극소수의 지배층이 모든 정보를 독점하던 실정이었다. 나머지 백성들은 그저 땅이나 파고, 물고기나 잡고, 대장간에서 망치나 휘두르면 그만이었다.

교육이 확대되고 지배층의 숫자가 자꾸 늘어가면서 정보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는 단계로 들어갔다. 특히 종이 값싸게 나오고, 나아가 인쇄술까지 발달하자 정보의 교환은 더욱 간단해졌다. 지식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턱없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물론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교육받은 지식층이 갑자기 많아진다는 사실은 꼭 축복만 받을 그런 일은 아니었다. 실제로 사회에 지식층이 갑자기 많아지면 그만큼 불평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기 마련이다. 2백년전의 프랑스가 바로 그런 지식층의 증가로 인하여 대혁명을 경험한 것처럼 그후의 많은 나라가 지식층의 등장으로 사회를 변화시켜 왔다. 교육받은 대중이 사회의 모든 일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대중사회로 바뀌어 왔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면 민주사회가 가능해진 것은 교육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식이 책이나 방송 따위로만 보급되는 그런 시대가 가고 컴퓨터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지성의 민주화」가 가능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얼마전 작고한 유명한 과학사 학자이며 사상가인 제이 쿵 브로노프스키는 과학기술의 발달이 아무리 이루어져도 그 지식이 일부 사람에 의해 독점되는 한 인간은 불행을 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 지식이 히틀러의 추종자들에 의해 독점된다면 보다 훌륭한 화학지식이 유태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죽이는가에 응용될 것이고, 미국 정부에 의해 독점된 원자 물리학 지식은 원자탄을 만드는 데 활용될 뿐이다. 브로노프스키는 이런 의미에서 과학기술 지식을 보다 많은 대중이 갖고 그것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감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런 의식의 변화를 일러 「지성의 민주화」라 하였다.

컴퓨터의 대중화를 통해 우리는 지금 그런 지성의 민주화가 가능해진 시점에서 있다. 구태여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이제 우리는 수시로 컴퓨터의 이용으로

## 21세기의 중심국이란 곧 한자 사용국이란 뜻인데 우리만이 유독 한자 쓰기를 포기한다면 한국인만이 중심국 되기를 포기하고 영원한 주변국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필요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세계는 어느 국가, 어떤 사회가 먼저 더 높은 수준의 정보화 사회를 이룩하느냐에 달려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예일대학교의 역사학 교수 폴 케네디의 책이 제법 화제가 되고 있는 모양이다. 서기 2000년이면 미국은 세계의 제1등국 자리를 일본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역사적인 고찰을 통해 주장한 책이다. 「서구의 몰락」은 이미 쉬팽글러 이래 여러 학자들에 의해 예언된 일이어서 지금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머지 않아 뒷전에 밀리게 되리라는 것은 사실 새로운 예측일 것도 없다. 문제는 이런 추세 속에서 한국인이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에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세상 돌아가는 모양이 2000년대가 시작되면 곧 세계의 중심은 태평양 서쪽으로 바뀔 것 같다. 지금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일본이 그 초기에는 다른 나라를 앞서겠지만, 한국과 중국도 그리 뒤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1세기는 한·중·일 세 민족에 의해 이끌어질 것을 뜻한다. 그런데 이 세 나라 가운데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불리한 여건 속에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지 않다. 우선 남과 북으로 나라가 갈라져 있는 것이 한 가지 불리한 여건이다. 또 땅덩이가 이웃보다 작고 인구도 적다는 사실이 좀 꺼림칙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어느 것보다도 가장 걱정스런 일은 동양 세 나라 가운데 우리만이 자꾸 한자를 버려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21세기의 중심국이란 곧 한자 사용국이란 뜻인데 우리만이 유독 한자 쓰기를 포기한다면 한국인만이 중심국 되기를 포기하고 영원한 주변국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백하다. 컴퓨터 마인드의 보급 못지않게 한자도 보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1세기의 정보화 사회는 컴퓨터, 영어, 한자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